

# 關漢卿 散曲과 雜劇 연구

- 작품세계의 불일치 논쟁을 중심으로 -

梁會錫\*

## 目 录

1. 문제 제기
2. 관한경의 시대와 그의 인식
3. 관한경의 처세태도와 주요 작품 세계
4. 관한경 작품 세계의 내면
5. 관한경의 문화사적 의미
6. 맺음말

## 1. 문제 제기

관한경은 원곡 4대가로 꼽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 받는 작가이다. 신중국 정부 수립 이후, 특히 1958년 뒤에 형성된 관한경 연구 붐은 「紅樓夢」를 연구하는 '紅學' 뒤를 이어 이른바 '關學'으로 불릴 정도였다. 문화대혁명 기간 잠시 주춤하였다가 1979년 이후 대륙 학자들의 관한경에 대한 관심은 다시 높아졌다.<sup>1)</sup> 한 통계에 의하면 20세기 중국의 주요 간행물에 발표된 그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가 700여 편이고, 그에 관한 단행본과 작품집도 20편에 달한다.<sup>2)</sup>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5A2A01018335).

\*\* 全南大學校 人文大學 中語中文學科 教授

1) 王艷霞, 「近25年來關漢卿研究述評」, 90쪽.

문화대혁명을 전후로 하여 중국고전문학에 대한 관점이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바이다. 관한경도 물론 예외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관한경의 경우, 논쟁의 핵심은 그의 작품 세계의 복잡성에 관한 것이었다. 이는 1984년부터 1년 반에 걸쳐 「光明日報」에 연재된 일련의 논쟁이 잘 보여주고 있다.<sup>3)</sup> 논쟁은 관한경이 잡극에서 보여주는 세계관 또는 인생태도가 산곡의 그것과 판연히 다르다는 데서 출발한다. 논쟁의 시발점 역할을 하였던 黃克의 글을 직접 보기로 하자.

관한경의 창작물을 접하기만 하면 어렵지 않게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발견된다. 주도적인 경향에서 관한경의 잡극과 산곡에는 명확한 차이가 존재한다. 잡극 창작에 구현되고 있는, 천지가 賢愚를 오관함을 꾸짖는 반역 정신, 황제의 친척마저 끌어내리는 복수 의지, 그리고 상대 적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마음대로 주무르는 투쟁 기술이 산곡 창작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고, 보이는 것은 단지 ... 세상과 다투지 않고 ... 현실에 안주하고 ... 세상을 업신여기고 냉소적 태도를 취할 따름이다. 이처럼 구차하게 연명하는 처세 태도, 무지몽매한 생활 정취는 잡극에서 과감하게 화를 내고 발언하며, 악한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고서 날카롭게 죄는 모습과 비교하자면 결국 전혀 다른 두 사람에게서 나온 듯하다.<sup>4)</sup> (밑줄은 필자)

관한경의 잡극에는 천지에 대항하는 반역 정신, 권력에 굴하지 않는 복수 의지, 불의를 좌지우지하는 투쟁 기술이 주도적 경향으로 구현되어 있는 반면 산곡에는 구차하게 연명하는 처세 태도와 무지몽매한 생활 정취가 주로 표현

2) 張大新, 『二十世紀元代戲劇研究』, 121쪽.

3) 黃克, 「娛人和自娛 — 關漢卿劇曲和散曲不同傾向之管見」, 「光明日報」, 1984년 5월 29일. 梁歸智, 「浪子·隱逸·鬪士 — 關於‘元曲’的評價問題」, 「光明日報」, 1984년 9월 4일. 王季思, 「元曲的時代精神和我們的時代感受」, 「光明日報」, 1985년 4월 9일. 郭英德, 「也談元曲的時代精神 — 與梁歸智同志商榷」, 「光明日報」, 1985년 10월 9일. 周月亮, 「也談元代作家鬪士精神的形成」, 「光明日報」, 1985년 11월 6일. 陶慕寧, 「娛人‘自娛’及時代精神 — 與梁歸智同志商榷」, 「光明日報」, 1985년 11월 13일. 陳維昭, 『20世紀中國古代文學研究史·戲曲卷』, 210-216쪽 참조.

4) 黃克, 「娛人和自娛 — 關漢卿劇曲和散曲不同傾向之管見」. 陳維昭, 앞의 책, 『20世紀中國古代文學研究史·戲曲卷』, 211쪽에서 재인용.

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황극은 이러한 차이가 잡극과 산곡이라는 문체의 차이, 그리고 당시 시대의 한계에서 비롯된다고 간주하였고, 이후 주2)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해석이 뒤를 이었다.

관한경의 작품 세계는 잡극과 산곡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하는 인식은 문화대혁명 전이나 후나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다만 「광명일보」에 게재된 일련의 논쟁들은 1980년대 사상적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에 힘입어 다양한 관점에서 그 차이를 해석하고 있는 점이 다를 뿐이다. 본고는 그들 관점의 타당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우선 유보하고, 먼저 정말 잡극과 산곡에 그만큼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문제 삼고자 한다. 만약 차이가 없거나 크지 않다면, 다시 말해 이른바 ‘주도적인 경향(主導傾向)’이 일치하거나 비슷하다면, 차이를 전제한 일련의 논쟁은 그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기존 관한경 연구는 대체로 1950년대 관방에서 제시한 관한경에 대한 평가, 즉 그는 억압 받는 민중을 대변하는 인민투사(人民鬪士)였다는 점을 기정사실로 전제하고 있다.<sup>5)</sup> 이런 전제 하에 연구 대상을 그 기준에 부합하는 일부 작품(「竇娥冤」 「救風塵」 「望江亭」)으로 제한하고, 그마저도 작품 전체 구조와 주제 등 거시적 시각에서 벗어나 일부 특정 장면만을 부각시키고 있어, 이른바 斷章取義했다는 혐의가 짙다. 한마디로 주관적 전제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고는 전체 작품을 통계적으로 정리하여 데이터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우선 객관성을 확보하고, 다음으로는 주류 작품 전

5) 1958년 세계평화대회이사회에서 “13세기 중국 위대한 연극작가 관한경의 창작활동 700주년을 열렬히 기념하자”고 제안하면서 국무원 부총리 陳毅는 다음과 같이 기조 발언을 하였다. “관한경의 연극 작품은, 비극 혹은 희극이든지 간에, 모두 봉건사회의 두 주요 계급의 대립을 표현하였다. 그는 시비가 분명하기에 애증이 분명하다. 그의 동정은 늘 피압박자에게 주어지는 바, 언제나 압박자는 보기에는 강대하나 실제로는 부패하고 무능한 반면, 피압박자는 보기에는 미약하나 확실히 무한한 지혜와 역량을 구비하기에 그들은 과감히 반항하고 심지어 죽어도 굴복하지 않고 결국 승리를 획득함을 묘사하고 있다.” 또 당시 劇協主席이었던 田漢은 「偉大的元代戲劇戰士關漢卿」을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話劇 「關漢卿」을 창작하였는데, 여기에서 관한경을 잡극으로 폄박받는 인민을 위해 싸우는 ‘인민투사’로 부각하고 있다. 참고, 「대중작가인가 인민투사인가 - 역대 관한경 평가에 대한 비판적 검토」 참조.

체를 관통하는 내면적 구조 혹은 의식이 무엇이고, 그것이 문화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관한경을 포함하여 원곡을 논의할 때는 늘 일종의 ‘편견’ 혹은 ‘선입견’이 도사리고 있다. 원대는 문화적으로 낙후한 유목민족이 폭압적 통치를 자행하던 암흑시대이라는 식의 인식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좁은 의미에서의 중국인(漢族 또는 漢人)은 극심한 민족 차별 정책 때문에 핍박을 당했고, 대대로 우월한 사회 지위를 향유하여 오던 문인들은 과거제도의 폐지와 사회적 기풍으로 인하여 유사 이래 최악의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심지어 “七匠, 八倡, 九儒, 十丐”라는 말을 인용하여 유생의 지위가 창기 아래 거저 위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는 남송의 유민인 謝枋得이 당시 ‘滑稽之雄’이 ‘유생을 소재로 해학을 한(以儒爲戲)’ 것을 기록한 것에 불과하여 결코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유학을 숭상했고, 전체적으로 볼 때 암흑적인 면모 못지않게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면모가 확인된다고 한다.<sup>6)</sup> 사실 관한경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두리뭉실한 원대 전체 상황이 아니라 관한경이 생존하고 활동한 시대 상황이 어떠했고, 또한 그가 그러한 시대를 여하히 체감하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 2. 관한경의 시대와 그의 인식

대부분의 원곡 작가와 마찬가지로 관한경의 생애에 관한 자료 역시 대단히 영성하다. 때문에 그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는지는 간접적인 자료에 의해

6) 자세한 것은 梁歸智, 「元曲的人文精神與文化啓示」 참조. 그는 다음 다섯 가지 특징으로 원대를 ‘재인식’하고 있다. 1. 중국 역대로 영토가 가장 넓고 국력이 가장 강한 왕조 중 하나였다. 2. 문화정책이 관대하고 문자옥이 매우 적은 왕조였다. 3. 원조는 몽고족 민족의 영향 아래 농후한 사회적 예술 분위기와 오락 기풍이 조성되었다. 4. 민족 갈등이 가장 첨예한 시대로, 통치 계층이 문화적으로 낙후한 민족이기에 각종 사회 문제가 야기되었다. 5. 문화 다원화와 종교의 다원화 시대로 인성의 구속이 적은 시대였다.

추론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 정확한 시기를 단정하여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근자에 비교적 구체화시킨 설에 따르면, 그는 1226년 전후에 태어나 1300년 전후에 죽었던 것으로 보인다.<sup>7)</sup> 그가 태어난 시기는 금나라가 中都(北京)를 몽고에게 함락 당하고(1215년) 근거지를 汴京(開封)으로 옮겨 근근이 연명하고 있던 때였다. 그 뒤 1234년 마침내 금나라가 멸망하는데, 이 때 관한경은 아주 어렸다. 따라서 그는 몽고 제국(뒤에는 元)에서 대부분 생존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원 太宗 오고타이(窩闊台)의 치세 시기(1229-1241) 직전에 태어나서 世祖 쿠빌라이(忽必烈)의 치세 시기(1260-1294) 약간 뒤까지 살았다고 하겠다.

흥미로운 점은 관한경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였을 장년 시기가 대체로 쿠빌라이의 치세 기간과 겹친다는 사실이다. 또한 더욱 흥미로운 점은 쿠빌라이의 치세가 바로 마르코 폴로가 몽고제국을 여행한 기간과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이다. 마르코 폴로는 1260년에 고향 베니스를 떠나, 1295년에 중국 남방 泉州에서 귀향길에 올랐다고 한다.<sup>8)</sup> 따라서 쿠빌라이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그 시대에 관한 마르코 폴로의 기록은 관한경의 시대 인식과 그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몽고의 大汗은 동시에 중국의 황제라는 해석을 하여 燕京에 도읍하고 이를 大都라고 불렀던 쿠빌라이에 대해서 중국인 간에는 寬厚한 仁君으로 알려진 듯하다.<sup>9)</sup> 왜냐하면 그는 중국지배를 위해 中書省을 중심으로 하는 신정부를 조직할 때, 중국인(華北 漢人)을 위주로 관리를 임명하였고, 蒙古 군주들 중에서는 중국문화에 대하여 가장 깊은 이해를 보였다고 일컬어지기 때문이다.<sup>10)</sup> 쿠빌라이는 중국인을 등용하면서 특히 유교를 익힌 교양인을 우대했으므로 비로소 남방의 道學이 華北에도 들어와 성행하게 되었다. 주지하듯이 도학 즉 理學이 관학으로 규정된 것도 원대의 일이고, 공자에 대해서 가장 높은 시호

7) 黃天驥, 「關漢卿和關一齋」. 張大新, 앞의 책, 117쪽에서 재인용.

8) 김호동 역주,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11쪽.

9) 宮崎市定 著, 曹秉漢 編譯, 『中國史』, 309쪽

10) 宮崎市定 著, 曹秉漢 編譯, 앞의 책, 301쪽. 310쪽.

를 내린 때도 원대였다.<sup>11)</sup> 또한 쿠빌라이가 관장하는 대 제국의 출현은 종래의 국경을 철폐하고 광범위한 시장을 누구에게나 개방하는 것이어서 경제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sup>12)</sup> 요컨대 쿠빌라이와 그의 시대에 대해서 역사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sup>13)</sup>

마르코 폴로의 눈에 비친 쿠빌라이와 그의 시대 상황 역시 대단히 우호적이다. 우선 쿠빌라이는 “우리 최초의 조상인 아담에서부터 지금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세상에 나타난 어떤 사람보다도 많은 백성과 지역과 재화를 소유한 가장 막강 사람”이라고 인정하고,<sup>14)</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인자한 군주임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거듭 강조하고 있다.

대군주는 백성의 실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가 통치하는 여러 지역과 지방으로 전령들을 보내어, 기후의 이변이나 메뚜기 떼 혹은 다른 역병으로 백성이 곡식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알려고 한다. 만약 어떤 백성이라도 피해를 입어 곡식을 갖지 못하게 되면 그는 그들이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걷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곡식을 그들에게 내주어서 그것을 먹고 파종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은 실로 군주의 커다란 은택이다.<sup>15)</sup>

또한 그는 밀, 보리, 기장, 쌀, 피 등 모든 종류의 곡식을 보관하는 공공창고를 만들어서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곡식을 모아두었다. 그래서 만약 어떤 곡식의 수확이 잘 안 되었거나 심하게 부족해지면 대군주는 내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많이 모아두었던 자기 곡식의 일부를 내놓도록 했다. 만약 한 가마에 1베잔트로 매매되는 시세라면-내가 말하는 것은 밀의 경우-그는 그 가격에 네 가마를 주도록 한다. 그가 얼마나 많은 곡식을 내놓는지 누구라도 웬만큼은 갖게 될 정도이고, 그래서 각각 곡식을

11) 梁歸智, 앞의 글, 37쪽.

12) 宮崎市定 著, 曹秉漢 編譯, 앞의 책, 308쪽.

13) 예컨대 明 太祖 朱元璋은 원대 몽고인에 심한 반감을 보이면서도, 원 세조 쿠빌라이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그는 漢의 高祖와 光武帝, 唐의 太宗, 宋 太祖와 함께 원 세조를 帝王廟에 모시고 몸소 참배를 했다. 黃仁宇, 『赫遜河畔談中國歷史』, 193쪽.

14) 김호동 역주, 앞의 책, 217-218쪽.

15) 김호동 역주, 앞의 책, 281-282쪽.

풍부하게 소유하게 된다. 대군주는 이런 방식으로 자기 백성이 기근에 들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에서 행해지도록 한다.<sup>16)</sup>

마르코 폴로는 쿠빌라이의 이러한 조치가 일회성이나 단기적인 것이 아니고 1년 내내 행하여지므로, 백성들은 그를 어찌나 좋아하는지 신처럼 여기며 숭배할 정도였다고 덧붙이고 있다. 만약 마르코 폴로의 기술이 사실이라면 이 시기에 장년기를 보낸 관한경은 쿠빌라이와 그의 시대를 어떻게 인식하였을까? 결코 야만적 폭군이 다스리는 암흑의 시기로 인식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관한경의 시대 인식을 알려주는 직접적인 자료는 없다. 그러나 남송의 멸망 직후, 그 수도 항주를 읊은 【南呂·一枝花】「杭州景」(이하 약칭 「항주경」)은 그가 자신의 시대를 암흑의 시기로 결코 보지 않았음을 잘 보여준다.

【남려·일지화】「항주 풍경」

하늘 아래 아름다운 고장, 사해 안 풍류 넘치는 곳. 위대한 원 왕조의 새로운 속국, 망한 송나라의 옛 강토라네. 물 수려하고 산 기이하니, 가는 곳마다 놀기 좋구나. 이쪽은 너무나도 부귀하니, 성 가득 수놓은 밭과 주렴이요, 줄곧 인가가 빼곡하구나. (【南呂·一枝花】「杭州景」 普天下錦繡鄉, 寶海內風流地. 大元朝新附國, 亡宋家舊華夷. 水秀山奇, 一到處堪遊戲. 這答兒忒富貴. 滿城中繡幕風簾, 一闌地人煙湊集.)

【양주】

백 리 넘게 거리가 반듯반듯, 만 채 남직 누각이 들쭉날쭉. 조금도 놀리는 땅이 없어라. 소나무 처마와 대나무 샛길, 약초 밭과 꽃 길, 차밭과 논, 대숲과 매화 시내. 곳곳마다 바로 시 제목 감이요, 걸음걸음마다 부채와 병풍 속 그림이라. 서엄장은 흡사 한 줄기 옥을 두른 듯, 오산의 빛은 천 겹 비취를 쌓은 듯. 아 바라보니 전당강은 유리 같은 만경창파요, 계다가 맑은 시내 푸른 물 있구나. 놀잇배 오락가락 한가로이 놓고 있네. 절강정은 바짝 마주 보노니, 험한 고개 높은 봉우리 긴 기암괴석을. 탐낼 만하고 읍을 만하구나. (【梁州】 百十里街衢整齊. 萬餘家樓閣參差. 並無半答兒閒田地. 松軒竹徑, 藥圃花蹊. 茶園稻陌, 竹塢梅溪. 一陀兒一句詩題, 行一步扇面屏幃. 西鹽場便似一帶瓊瑤. 吳山色千疊翡翠. 兀良望錢塘江萬

16) 김호동 역주, 앞의 책, 285쪽.

頃玻璃. 更有清溪綠水. 畫船兒來往間遊戲. 浙江亭緊相對. 相對着險嶺高峰  
長怪石. 堪羨堪題.)

【미】

집마다 도랑물이 어른거리고, 누각들 산기운에 우뚝 솟아, 멀리 서호의  
저녁 산세를 바라보고 있구나. 여길 봐도, 저길 봐도, 설사 몰감 있어도  
빛을 대지 못하겠구나.(【尾】家家掩映渠流水. 樓閣崢嶸出翠微. 遙望西  
湖暮山勢. 看了這壁. 靚了那壁. 縱有丹青下不得筆.)<sup>17)</sup>

시인은 누구보다도 예민한 사람들이다. 한 국가나 왕조의 멸망에 대해서  
시인이 이른바 ‘黍離之歎’을 표하는 것은 일종의 관례에 가까울 정도로 중국  
고전시가에서 보편적이다. 그런데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 데 없다”는 식  
의 감상은 추호도 보이지 않는다. 사실 이 점은 알고 보면 당연한 일이지도  
모른다. 당시 남송 조정을 섭정하던 謝태후가 몽고군의 총지휘관 바안(伯顔)  
에게 항복하였기에(1279년) 항주는 戰禍를 당하지 않아 번성한 모습을 고스  
란히 유지하고 있었고, 게다가 이러한 대 사건을 직접 목격하면서도 항주의  
민중들은 철시하지 않고 평시와 같이 상거래를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이다.<sup>18)</sup>  
관한경이 항주를 ‘위대한’ 원 왕조의 새로운 속국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드리  
고, 대도와 마찬가지로 놀기 좋은 풍류 넘치는 곳으로 인식함은 어쩌면 당연  
하다고 하겠다.

관한경의 눈에 비친 항주는 마르코 폴로의 그것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  
다. 항주가 세상에서 가장 당당한 최고의 도시임을 굳게 믿었던 마르코 폴로  
는 항주에 대해서 큰 편폭을 할애하여 자세히 적고 있는데, 마치 관한경의  
「항주경」에 주석을 달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이다. 백 리 넘게 반듯반듯 뻗  
어있는 거리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하였고,<sup>19)</sup> 만 채 남짓 들쭉날쭉 솟아있

17) 李漢秋 周維培 校註, 『關漢卿散曲集』, 21-23쪽.

18) 宮崎市定 著, 曹秉漢 編譯, 앞의 책, 302쪽.

19) 김호동 역주, 앞의 책, 376쪽. “광장으로는 10개의 중요한 것들이 있고, 그 외 각 지  
구마다 그런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 방형 모양의 그것은 한 면의 길이가 반마일 정  
도이다. 그 전면을 따라서 40보 넓이의 간선도로가 도시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  
지 직선으로 달리고 있고, 그 길에는 쉽게 건널 수 있는 평평한 다리들이 있다. 이처

는 누각과 빼곡히 들어선 저택에 대해서도 지면을 아끼지 않고 있다.<sup>20)</sup> 또한 관한경이 느꼈던 것처럼 항주가 풍류 넘치고 놀기 좋은 유흥 도시임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이 도시 주민들의 머릿속은 일이나 사업을 끝내고 하루 몇 시간만이라도  
여인들이나 기녀들과 함께 보내려는 생각으로 가득하다. 그 같은 유람선  
이나 도시 안을 다니는 마차 안에서 즐거움을 만끽하려는 것이다.<sup>21)</sup>

항주가 뛰어난 자연풍광을 자랑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바이다. 그래서 관한경은 “하늘 아래 아름다운 고장”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또한 “사해 안에서 풍류가 넘치는 곳”이라 했는데, 그 구체적인 이유를 마르코 폴로가 분명히 설명하여 주는 듯하다. 그것은 여인과 기녀로 대변되는 유흥이다.<sup>22)</sup> 유흥 문화는 도시 시민문화이고, 그것은 상업경제의 발달을 전제로 한다. 실제로 송 원 시기 항주는 해외 무역을 기반으로 크게 흥성한 상업의 중심지였다.<sup>23)</sup>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쿠빌라이 시기의 원대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있어서 관한경과 마르코 폴로가 기본적으로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들의 인식은 근거 없는 주관적인 산물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대체로 부합한다. 따

럼 둘레가 2마일 정도인 광장들은 4마일마다 하나씩 나온다.”

20) 김호동 역주, 앞의 책, 379쪽. “우리가 이야기한 주요 도로, 즉 도시의 한쪽에서 다른 쪽까지 달리고 있는 도로를 따라 양쪽으로 주택들이 있는데, 건물들이 크고 정원도 붙어 있다. 381쪽. 남쪽으로 호수가 하나 있는데 둘레는 거의 30마일이다. 그 주위에 귀인과 귀족들 소유인 수많은 아름다운 누각과 집들이 세워져 있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그보다 더 훌륭히 설계하고 더 화려하게 치장해서 만들 수 없을 정도이다.”

21) 김호동 역주, 앞의 책, 383쪽.

22) 이 점은 다음 장에서 다룰 【南呂·一枝花】「漢卿不伏老」에 잘 나타난다.

23) 김호동 역주, 앞의 책, 387쪽. “이 도시에서 북동동 방향으로 25마일 떨어진 곳에 바다가 있고 거기에 감푸(Gampu)라는 이름의 도시가 있다는 사실이다. 매우 훌륭한 항구로서 인도나 다른 지역을 떠난 큰 배들이 값진 상품을 많이 싣고 도착하는 곳이다. 킨사이시에서 그 항구까지는 큰 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통해 배들이 오르내린다. 그리고 이 강은 그 도시를 지나 더 먼 여러 지역을 거쳐 간다.” 여기서 킨사이시는 行在의 음역으로 항주를 가리킨다.

라서 “원대 = 암흑시대”라고 관한경이 인식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은 불식되어야 한다. 또한 관한경이 몽고족 지배 하에서 漢族으로서 강렬한 민족의식을 견지하였을 것이라는 추측 역시 유보되어야 한다.<sup>24)</sup>

### 3. 관한경의 처세 태도와 주요 작품 세계

관한경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료 중의 하나가 바로 套數【南呂·一枝花】「漢卿不伏老」(이하 약칭 「불복노」)이다. 자화상이라 불러도 좋을 이 작품에서 관한경은 자신의 인생 목표와 처세 태도를 여과 없이 과감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남려·일지화】「한경은 늙음에 굴복하지 않으리라」

담 넘은 꽃 송이송이 붙잡고, 길 가 버들 가지가지 꺾자구나. 꽃이라면 연한 붉은 봉오리를 잡고, 버들이라면 부드러운 푸른 가지를 꺾어야지. 바람둥이의 풍류일세. 버들 꺾고 꽃 붙잡는 수완을 믿고서, 돌진하여 꽃과 버들 시들어야 그만 두리. 반평생 버들을 희롱하고 꽃을 잡았거니와, 한평생 꽃에 자고 버들에 누우리. (【南呂·一枝花】「漢卿不伏老」攀出牆花朵花, 折臨路枝枝柳. 花攀紅蕊嫩, 柳折翠條柔. 浪子風流, 憑着我折柳攀花手, 直煞得花殘柳敗休. 半生來弄柳拈花, 一世裏眠花臥柳.)

【양주】

나는 온 천하 오입쟁이의 영수, 온 세상 바람둥이의 두목. 원하거니와 흥

24) 흔히 「單刀會」가 민족의 기상을 노래한 작품으로 이해되어 왔다. 예컨대, 張云生, 『關漢卿傳論』, 128쪽. “關羽這種機智果敢·英勇無畏·保衛漢土的精神, 是當時廣大漢族人民反對蒙古貴族統治的思想表現.” 그러나 관한경이 태어나고 활약했던 大都 지역은 오랜 기간 遼(916-1125) 金(1115-1234)의 치하에 놓여 있었던 점을 감안하거나, 또 「항주경」을 통하여 유추하건데, 것처럼 강한 민족의식을 갖고 있었는지는 의심스럽다. 단지 관우를 포함한 『삼국지』는 당시 대중적인 인기를 끌 수 있는 제재이기 때문에 관한경이 취재하여 극화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송원 시대 연극과 더불어 성행하였던 說話에서 講史가 주요 갈래의 하나였고, 게다가 ‘說三分’이란 항목이 따로 설정될 정도로 삼국지 고사가 크게 유행했다. 胡士瑩, 『話本小說概論』, 100-107쪽.

안 변치 않고 의구하길. 꽃 속에 세월 보내고, 술 안에 근심 잊기를. 분차와 진죽, 타마와 장구, 음울 이해하기 모두 능숙하니, 무슨 까닭 모를 수 십이 마음에 닥치랴. 벗하는 이는 은 경대 앞 은쟁을 켜며 은 병풍에 방긋 기대고 있는 은쟁 소녀이고, 벗하는 이는 섬섬옥수 잡고 옥 어깨 나란히 옥 누대 오르는 옥천 신녀이며, 벗하는 이는 금루의를 노래하며 금 술독 들고 금 술잔에 넘치게 따르는 금비녀 아씨라네. 너희들은 말하지 내가 늙었으니, 잠시 쉬라고. 허나 화려한 무대에서 풍월공명의 장원을 차지하고서, 더욱 영롱하고 또한 총명한 걸. 난 비단 진지와 꽃 진영의 총수, 일찍이 방방곡곡을 노닐었다네. (【梁州】我是箇天下郎君領袖, 蓋世界浪子班頭. 願朱顏不改常依舊, 花中消遣, 酒內忘憂. 分茶擲竹, 打馬藏鬪, 通五音六律滑熟. 甚閒愁到我心頭. 伴的是銀箏女銀臺前理銀箏笑倚銀屏, 伴的是玉天仙攜玉手並玉肩同登玉樓, 伴的是金釵客歌金縷捧金樽滿泛金甌. 你道我老也, 暫休. 佔排場風月功名首, 更玲瓏又剔透. 我是箇錦陣花營都帥頭, 曾翫府遊州.)

## 【격미】

너희 바람둥이들은 풀 언덕 흙 굴에서 막 태어난 토끼 새끼처럼 사냥터를 무작정 내달리지만, 나는 올가미와 그물을 겪은 푸른 깃의 장끼처럼 싸움터를 익숙히 내딛는다네. 숨겨진 활과 비밀 화살 그리고 그럴싸한 창끝도 당했지만, 결코 남에게 뒤쳐진 적 없었다네. 사람이란 중년이 되면 만사가 끝이라 하지 않았던가, 내가 어찌 봄가을 헛되게 보내랴. (【隔尾】子弟每是箇茅草岡沙土窩初生的兔羔兒乍向圍場上走, 我是箇經籠罩受索網蒼翎毛老野鷄蹣蹣的陣馬兒熟. 經了些窩弓冷箭蠟鎗頭, 不會落人後. 恰不道人到中年萬事休, 我怎肯虛度了春秋.)

## 【미】

나는 썩도 물리지 않고 살아도 익지 않고 두드러도 납작해지지 않고 볏아도 터지지 않는 땡그랑땡그랑 한 알의 청동 완두, 너희 바람둥이들이 누가 파낼 수 없고 찢어낼 수 없고 풀어낼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차곡차곡 천 겹의 비단 올가미 속으로 들어오라 하였더냐? 내가 논 것은 양원의 달, 마신 것은 동경의 술, 완상한 것은 낙양의 꽃, 붙잡은 것은 장대의 벼들. 바둑도 잘하고, 축국도 잘하고, 사냥도 잘하고, 우스개도 잘하고, 가무도 잘하고, 연주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시도 잘하고, 주사위도 잘한다네. 너희가 내 이를 뽑고 내 입을 비틀고 내 다리를 절게 하고 내 손을 부러뜨린들, 하늘이 내게 준 이 몸쓸 고질병이야, 그래도 그만 둘 수 있으랴. 다만 염라대왕이 친히 부르고, 저승사자가 직접 와 끌어서, 세 영혼이 저승으로 가고, 일곱 혼백이 지옥으로 가지 않고서야. 하느님,

그 때야 비로소 안개 꽃 길을 걷지 않으리.(【尾】我是箇蒸不爛煮不熟搥不匾炒不爆響瑤瑤一粒銅豌豆, 恁子弟每誰教你鑽入他鋤不斷斫不下解不開頓不脫慢騰騰千層錦套頭. 我翫的是梁園月, 飲的是東京酒, 賞的是落陽花, 攀的是章臺柳. 我也會圍棋, 會蹴鞠, 會打圍, 會插科, 會歌舞, 會吹彈, 會嚙作, 會吟詩, 會雙陸. 你便是落了我牙歪了我嘴癩了我腿折了我手, 天賜與我這幾般兒歹症候, 尙兀自不肯休. 則除是閻王親自喚, 神鬼自來勾. 三魂歸地府, 七魄喪冥幽. 天那, 那中間纔不向煙花路兒上走.)<sup>25)</sup>

“무릇 우물이 있는 곳이면 유명이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sup>26)</sup>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던 북송 詞人 柳永(987?-1053)을 연상시켜준다. 그의 작품은 특히 歌妓들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그가 죽었을 때는 자기들이 각출하여 장례를 지내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화류계와 뗄 수 없는 인연을 맺고 있었던 독특한 인물이 유명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관한경의 「불복노」 자체가 유명이 작품 【鶴冲天】 【傳花枝】와 매우 유사한데, 이 점은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지명(양원, 동경, 낙양, 장대)이 모두 중원 또는 북방이라는 점에서 이 작품은 「항주경」보다 이른 시기, 즉 남송 멸망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대도(북경)의 ‘玉京書會’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行院, 즉 妓樓를 출입하던 시기에 썼던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당시 대도의 창기에 대해서 마르코 폴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 도시에는 도성의 내부와 외부에 굉장히 많은 가옥과 주민들이 있다. ... 죄를 지은 여자는 성안에 감히 살 수 없는데, 이들은 돈을 위해 남자에게 봉사하는 천한 여자들로서 교외에 산다.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은 도저히 믿기지 않을 것이다. 돈 때문에 남자를 위해 봉사하는 여자들의 숫자는 2만 명은 족히 될 것이다.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그들이 필요한 것은 매일같이 그곳을 드나드는 엄청나게 많은 수의 상인과 외래인들 때문이다. ... 천한 여자들이 내가 말한 정도로 많다면 여러분은 캄발록의 주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을 것이다. ... 보다 진귀한 것, 보

25) 李漢秋 周維培 校註, 『關漢卿散曲集』, 26-33쪽.

26) “凡有井水飲處, 卽能歌柳詞.” 『避暑錄話』 하권. 唐圭璋, 『宋詞紀事』, 19쪽에서 재인용.

다 값진 것들이 이 도시로 들어오는데 이 세상 어느 도시보다 더 많이  
유입되며, 더 많은 상품이 매매된다.<sup>27)</sup>

여기서 캄발록은 대도를 가리킨다. 우선 주의할 점은 창기가 단순히 돈 때문에 남자를 위해 봉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靑樓集』이 웅변하듯이 그녀들은 당시 잡극 등의 공연예술이나 각종 기예를 담당하는 연희자였다는 사실이다. 이 점은 관한경이 당대 최고의 배우였던 朱簾秀와 교류하고, 또 직접 무대 공연에 참여 했다는 사실과 부합한다. 「불복노」에서 관한경은 14종의 각종 기예에 능통함을 밝히고 있는데, 그 중 插科, 歌舞, 吹彈, 嚙作, 吟詩, 五音六律 등은 연극 공연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종목으로, 관한경은 이를 통하여 연희자인 창기와 교류하고 소통하였을 것이다. 「항주경」에서 보았듯이, 그는 만년까지 풍류를 즐겼었는데, 그 장소인 항주 역시 창기가 넘쳐 났다고 마르코 폴로는 적고 있다.<sup>28)</sup> 아무튼 「불복노」는 관한경이 갖가지 대중적 유희 문화에 두루 통달한 인사로서 풍류를 즐기는 인물이었음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관한경 본인의 용어로 말하자면, 부귀공명과 대를 이루는 ‘風月功名’의 장원의 지위를 추구하고 향유하고자 한 풍류객이었다. 물론 풍류의 중심에는 창기로 대표되는 여인이 자리한다.

여인이라는 그의 주된 관심은 산곡과 잡극 작품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우리나라 한 연구자에 의하면 관한경의 산곡 작품 54수 가운데, 사랑과 이성애 관한 것이 65% 35수(소령 24, 투수 9, 잔투 2), 故事歌詠이 9% 5수(소령), 避世와 玩世의 情을 읊은 것이 15% 8수(소령 6수 투수 2수), 자연풍광을 묘사한 것이 7% 4수(소령1 투수1)이고 기타가 2수 4%라고 한다.<sup>29)</sup> 한편 중국 대륙의 한 학자는 7종류로 나누고, 描寫景物이 15.8%, 抒發退隱之情이 10.5%, 描寫閨思別情이 29.3%, 描寫男女愛情이 24.1%, 描寫女子情態가 15%,

27) 김호동 역주,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268-270쪽.

28) 김호동 역주, 앞의 책, 378쪽. 다른 거리에는 기녀들이 살고 있는데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말하기도 힘들 정도이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지정된 구역인 광장 근처뿐만 아니라 시내 전역에 걸쳐 흩어져 있다.

29) 金甫暉, 「關漢卿散曲研究」, 33쪽.

歌詠故事가 2.3%, 表白自我가 3%에 각각 달한다는 통계를 내놓고 있다.<sup>30)</sup> 이 중 여인과 관련되는 3개를 합치면 68.4%에 이르므로 위의 분석과 거의 일치한다. 또한 관한경과 더불어 원곡 4대가로 꼽히는 白樸, 馬致遠과 비교한 결과,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제재는 景物, 愛情, 退隱, 女子情態인데, 경물을 가장 많이 다룬 작가는 백박이고, 퇴은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작가는 마치윈인 반면, 애정과 여자정태에 있어서는 관한경이 두 사람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다루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sup>31)</sup> 그렇다면 백박을 경물 전문가, 마치윈을 퇴은 전문가라고 부르고, 관한경은 여인을 전문적으로 다룬 작가라 불러도 좋을 듯하다.

『錄鬼簿』의 기록과 기타 자료를 종합할 때, 관한경이 지었다고 전해지는 잡극 작품은 67종이고, 그 중 18종이 현재 전한다. 그런데 이 중 6종에 대해서는 그의 작품이 아닐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sup>32)</sup> 한편 羅錦堂은 일찍이 『元雜劇本事考』에서 관한경의 작품을 14종으로 제한한 바 있다.<sup>33)</sup> 일단 본 연구에서는 나금당의 주장을 따르기로 하는데, 이들 작품은 크게 네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남녀의 애정과 혼인 문제를 다룬 작품이 7종으로 「救風塵」 「金線池」 「謝天香」 「調風月」 「玉鏡臺」 「拜月亭」 「望江亭」이다. 두 번째는 살인사건과 재판을 다룬 작품으로 3종이 있는데 「竇娥冤」 「緋衣夢」 「蝴蝶夢」이다. 세 번째는 역사적인 사건과 인물을 다룬 작품으로 3종이 있는데 「單刀會」 「西蜀夢」 「哭存孝」이고, 마지막으로 길상을 축원하는 작품인 「陳母教子」가 있다. 애정과 혼인을 다룬 연극이 전체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두아원」과 「비의몽」도 결혼 문제를 둘러싸고 사건이 전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거나, 또 저자 문제가 있는 「곡존효」와 「진모교자」를 유보한다면 애정과 혼인 관련 작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것이 산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30) 馬顯慈, 『關漢卿白樸馬致遠三家散曲之比較研究』, 63쪽

31) 馬顯慈, 앞의 책, 111쪽.

32) 6종은 「魯齋郎」 「裴度還帶」 「五侯宴」 「單鞭奪槊」 「陳母教子」 「哭存孝」이다. 張大新, 『二十世紀元代戲劇研究』, 118-120쪽.

33) 羅錦堂, 『元雜劇本事考』, 7-15쪽.

오히려 능가할 정도이다. 여인에 관한 깊은 관심과 이해는 극 체제에도 투영되어 있다. 주지하듯이 잡극은 남성 배역이 노래하는 末本과 여성 배역이 노래하는 日本으로 양분되는데, 관한경의 경우는 단본이 11편을 차지하고 있다. 이 역시 여인을 가까이 하고 그들의 생리를 잘 이해한 데서 비롯된 자연스런 현상으로 보인다.

산곡의 경우, 백박이나 마치원과 비교했을 때 관한경은 여인 전문 작가라 할 수 있었는데, 잡극의 경우는 어떠한지 원 잡극 전체적인 상황과 견주어 볼 필요가 있겠다. 다시 나금당의 분류를 도표로 간단히 정리하여 보자.<sup>34)</sup>

분류		원 잡극 현존 작품		관한경 현존 작품	
歷史劇	以歷史事蹟爲主··	「周公攝政」 등 15편	35편 (22%)	없음	3편 (21.4%)
	以個人事蹟爲主··	「介子推」 등 20편		「단도회」 「서촉몽」 「곡존효」	
社會劇	朋友	「范張鷄黍」 등 4편	24편 (15%)	없음	2편 (14.3%)
	公案	「緋衣夢」 등 20편		「비의몽」 「호접몽」	
家庭劇		「降桑椹」 등 27편	27편 (17%)	「진모교자」 「두아원」	2편 (14.3%)
戀愛劇	良家男女之戀愛	「배월정」 등 10편	20편 (12%)	「배월정」	2편 (14.3%)
	良賤間之戀愛	「금선지」 등 10편		「금선지」	
風情劇		「옥경대」 등 8편	8편 (5%)	「옥경대」 「망강정」 「조풍월」 「구풍진」 「사친향」	5편 (35.7%)
仕隱劇	發跡變泰	「伊尹耕莘」 등 14편	21편 (13%)	없음	0편 (0%)
	遷謫放逐	「貶夜郎」 등 5편		없음	
	隱居樂道	「七里灘」 등 2편		없음	
道釋劇	道教劇	「莊周夢」 등 14편	22편 (14%)	없음	0편 (0%)
	釋教劇	「西遊記」 등 8편		없음	
神怪劇		「張天師」 등 4편	4편 (2%)	없음	0편 (0%)
합계			161편		14편

34) 羅錦堂, 앞의 책, 419-452쪽.

		(100%)		(100%)
--	--	--------	--	--------

나금당은 가정극을 설정하고 「진모교자」와 더불어 「두아원」까지를 집어넣고 있어, 필자의 분류와 약간 다르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아니다. 또 風情劇이라는 항목을 따로 두고 있지만, 그의 말대로 골계적인 이야기를 겸한 남녀 간의 풍류이라면<sup>35)</sup> 본질적으로 애정극과 다를 게 없다. 애정극과 풍정극을 하나로 볼 때, 현존하는 원 잡극 전체 작품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은 17%에 불과하나, 관한경의 경우는 무려 50%에 달한다. 또한 현존하는 작품 161편 중 관한경 작품 14편이 차지하는 비중은 8.7%에 불과하나 연애극과 풍정극으로 국한시키면 25%에 달한다. 반면 전체 현존 작품의 27%를 차지하는 사극과 도석극은 한 편도 없다. 이러한 사실들은 그가 남녀 연애와 혼인 문제에 대하여 유달리 관심이 많았음을 의미한다. 다시 神仙道化劇을 즐겨 썼던 馬致遠이나, 역사고사와 『수호전』 고사를 전문적으로 다룬 高文秀, 그리고 公案劇(재판극)에 치중했던 鄭廷玉과 견주어 본다면 관한경 잡극의 편향성은 두드러진다.

이상 통계적인 검토를 통하여 볼 때, 관한경의 산곡과 잡극은 그 주도적 경향에 있어서 거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불복노」의 정신, 즉 풍월공명의 장원이 되고자 하였던 그의 인생관이 고스란히 양자에 반영되어 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작품 세계의 불일치를 전제로 한 논쟁은 사실상 그 근거를 잃게 된다. 이제 남은 정말로 중요한 과제는 이른바 ‘주도적 경향’, 즉 주요 작품 세계를 심도 있게 재해석하는 일이다.

#### 4. 관한경 작품 세계의 내면

35) 羅錦堂, 앞의 책, 440쪽. “凡以男女間風流而兼有滑稽情趣之故事爲主題者, 皆歸此類, 約等於十二科之風花雪月煙花粉黛之各一部.”

투수 「불복노」가 그러했듯이 산곡 작품에서 관한경은 여인에 경도된 자신을 숨기지 않고 드러낸다. 창기를 위시로 하는 여인들의 여러 자태를 리얼하게 그려내기도 하고(예: 【雙調·碧玉簫】其八, 【越調·鬪鷓鴣】「女校尉」), 전통적인 주제인 규원과 이별의 슬픔을 읊기도 하고(예: 【仙呂·翠群腰】「閨怨」, 【南呂·四塊玉】「別情」), 특이한 창기를 해학적으로 놀리기도 하고(예: 【仙呂·醉扶歸】「秃指甲」, 【越調·小桃紅】「胖妓」), 알콩달콩한 사랑 싸움과 가슴 설레는 밀회를 묘사하기도 하고(예: 【仙呂·一半兒】「題情」其二, 【正宮·白鶴子】其四), 심지어 성적 클라이맥스를 포함한 육체적 사랑을 생생하게 보여주기도 한다(예: 【雙調·新水令】(楚臺雲雨會巫峽)). 「불복노」의 선언이 일시적인 허언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다시 한 번 확인해 두어야 할 사항은 창기를 위시로 하는 여인이 당연히 단순한 성적 쾌락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雙調·新水令】에서 “그대여 어리석게 굴지 마시게, 명리 따윈 다투지 마시구려. 다행히 술 서너 잔 있으니, 차라리 꽃 앞에 취하세 그려.(君莫癡, 休爭名利. 幸有幾盃, 且不如花前醉.)”라 하고, 「불복노」에서 “화려한 무대에서 풍월공명의 장원을 차지한다(佔排場風月功名首)”라고 할 때, 꽃과 풍월공명으로 표현되고 있는 여인은名利와 부귀공명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관한경 작품의 주도적 경향의 내면과 그 문화사적 의미를 읽어내야 한다.

잡극은 본질적으로 서정시인 산곡처럼 작자의 감정이나 생각을 직접적으로 표출할 수 없다. 서사문학이기 때문에 극적 구조 속에 그것이 간접적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잡극 속에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산곡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관한경의 내면세계가 투영되어 있다. 관한경의 잡극 14편 중 연애와 혼인을 다룬 작품은 7편이다. 여주인공의 신분에 따라 이는 다시 창기 3편(「구풍진」 「금선지」 「사천향」), 하녀 1편(「조풍월」), 규수 2편(「배월정」 「옥경대」), 과부 1편(「망강정」)으로 나누어진다. 이처럼 여주인공의 신분은 다양하지만, 사랑의 수혜자 또는 최종 승리자는 하나의 예외도 없이 죄다 문인 또는 서생이다. 이 점은 심지어 재판극인 「비의몽」도 마찬가지로, 살인사건 판결 후 여주인공 王閨

香과 결혼하는 李慶安도 가난하지만 책을 읽는 서생이다. 반면 남녀 주인공의 사랑을 방해하거나 라이벌 역할을 하는 인물은 상인이거나 권력가이다. 「금선지」에서는 금전을 밝히는 기생어미 때문에 사랑의 위기가 발생하고, 「구풍진」에서 상인 周畬가 安秀實의 라이벌 역할을 하고, 「망강정」에서 문인 출신의 관리 白士正과 과부 譚記兒의 사랑을 파괴하고자 하는 楊衙內는 권력형 무뢰한이다. 「비의몽」에서 남녀 주인공의 결합을 돕고 있던 하녀를 살인한 裴炎은 역시 상인이다. 한편 「사천향」의 柳永, 「조풍월」의 小千戶, 「배월정」의 蔣世隆, 「옥경대」의 溫嶠는 크고 작은 파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분이 문인 또는 서생이기에 결국 사랑의 결실을 차지한다. 이와 같은 설정은 사실 현실 상황과 어긋나는 것이다. 창기가 從良을 하든지 규수가 결혼 상대를 찾든지 간에 富와 貴가 주요 요건이 됨은 인지상정이리라. 상인은 부를 갖고 권력가는 귀를 갖고 있는 반면, 당시 원대 문인은 그 어느 것도 보장 받지 못한 처지였다. 그런데도 관한경 작품 속의 문인은 별 어려움 없이 사랑을 성취하거나, 상인 또는 권력가와 경쟁하더라도 최종 승리를 거둔다. 이는 산곡에서 보여준 처세태도가 반영된 결과인데, 관한경의 소망이자 당시 문인들의 妄想이라 할 수 있다.<sup>36)</sup>

상인이나 권력가가 문인과 여인의 사랑을 두고 경쟁할 경우, 그들은 예외 없이 악한이나 무뢰한으로 묘사된다. 양귀지의 용어를 빌리자면, 전자는 ‘好浪子(좋은 바람둥이)’에, 후자는 ‘壞浪子(나쁜 바람둥이)’에 해당한다.<sup>37)</sup> 나쁜 바람둥이는 사회의 어두운 면모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지만, 시대의 암흑을 고발하는 것이 작품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다. 마치 관한경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두아원」에서, 경제적 착취와 정치적 압박을 비극의 한 배경으로 설정할 따름이지 그 자체를 폭로하기 위함이 아닌 것과 마차가지다.<sup>38)</sup> 그렇다고 좋은 바람둥이이라

36) 楊秋紅, 「世俗的魅惑與儒生的妄想 - 關漢卿愛情劇中的俗文化特質探析」, 95쪽. 高益榮, 『元雜劇的文化精神闡釋』, 128쪽.

37) 梁歸智, 앞의 글, 40쪽.

38) 郭英德, 「關劇文化意蘊發微」, “관한경은 단지 경제적 착취, 정치적 압박을 비극의 한 배경으로, 다시 말해 우연한 기회나 인연의 하나로 간주하여 묘사하고 있을 뿐이다. 결코 우리가 인식하고 싶어 하는 그런 식의 비극의 근원이나 비극의 결정적 요소로 여기고 있지는 않다.” 張月中 主編, 『元曲通融』, 1311쪽에서 재인용.

할지라도 문인의 형상을 마냥 긍정적으로 부각시킬 수는 없다. 앞서 보았듯이 창기의 흥성이 상업 발달의 산물이자 잡극 공연의 주요 당사자이고, 또 그 공연 자체가 경제적 기반이 없다면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상인과 권력가를 부정적으로 그리면서, 문인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연기자와 관객의 반감을 살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관환경은 문인을 무기력하거나 가소로운 존재로 개조하는 반면, 창기를 위시로 하는 여인의 형상은 반대로 능력 있고 당당한 모습으로 부각시킨다. 「구풍진」과 「망강정」에서 안수실과 백사정은 속수무책으로 창기 趙盼兒와 과부 출신의 아내 譚記兒의 미인계를 지켜 볼 뿐이고,<sup>39)</sup> 「조풍월」에서 하녀 燕燕은 자신의 힘으로 사랑을 성취한다. 「금선지」 「사천향」 「옥경대」의 경우는 친구나 상관인 官府의 도움에 전적으로 의지할 뿐이다. 「배월정」의 장세룡이 대단원을 이룬 것도 우연이지 그 자신의 능력이 아니다. 특히 「금선지」에서 한보신이 府尹에게 절을 하고, 무릎을 꿇고, 자살하겠다고 협박하는 모습이거나, 「사천향」에서 유영이 府尹에게 무려 다섯 차례나 연이어서 자신의 연인을 돌봐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은 무력함을 넘어서 우스꽝스럽다. 이 같은 문인 형상의 개조는 연기자인 창기와 상인을 포함한 관객에 영합하기 위한 조치임은 물론이지만,<sup>40)</sup> 또한 문인의 초라한 자화상으로 당시 문인의 처지를 진솔하게 반영하고 있다. 요컨대 관환경의 주요 작품세계, 즉 여인을 키워드로 하는 풍류 속에는 문인의 망상과 초라한 자화상이 담겨져 있다.

39) 「구풍진」에서 조반야 주사로부터 宋引章을 구출해 낼 때 그녀는 창기의 장기인 미인계를 유감없이 구사한다. 「망강정」에서 담기아가 楊衙內에게 접근하여 술을 먹고 흘려 제압하는 것 역시 창기의 미인계이다. 이러한 창기의 장기에 대해 마르코 폴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김호동 역주, 앞의 책, 378쪽. “거리에는 기녀들이 살고 있는데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말하기도 힘들 정도이다. … 이 여자들은 영리하고 노련해서 갖가지 사람의 비위를 맞춰주고 그럴 듯한 말로 기분 좋게 구워삶는다. 그래서 그들에게 한번 빠져버린 외래인들은 말하자면 황홀경을 경험하고 그들의 애교와 매력에 온통 정신을 잃는 바람에 그 후로는 그들을 결코 잊지 못하게 된다.”

40) 楊秋紅, 앞의 글, 95쪽.

## 5. 관한경의 문화사적 의미

현존 잡극 작품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애정극에서 관한경은 문인의 망상과 초라한 자화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고 관한경의 애정극을 그저自嘲적 산물로 간주하고 간단히 넘어갈 일은 아니다. 양귀지는 다음과 같이 읽어낸다. 원 잡극에 등장하는 좋은 바람둥이와 나쁜 바람둥이는 그 키워드가 각각 문화와 권세인데, 권세는 사람을 부식하지만, 문화는 그것이 있으면 품위 있고 멋진 반면 없으면 야만스럽고 천해지므로, 이는 바로 문화가 있으면서도 사회적으로 몰락한 한족 문인과 문화가 없으면서도 통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몽고인의 대비이다.<sup>41)</sup> 흥미로운 견해이지만 여전히 원대를 민족 갈등이 첨예한 암흑사회로 보는 ‘편견’이 깔려 있다.

관점을 바꿔 보면 새로운 문화적 의미가 발견된다. 앞서 잠깐 관한경의 자화상이라 할 수 있는 「불복노」가 유영의 詞 작품과 관련이 있음을 언급한 바 있지만, 실제로 유영의 【傳花枝】와 【鶴冲天】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sup>42)</sup> 관한경이 「사천향」에서 유영을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유영은 【전화지】에서 기존 문인들과 전혀 다른 인생 목표를 제시한다.

### 【전화지】

평생 자부했노라, 풍류와 재주를. 입으로는 장·진·조씨를 들먹이지.<sup>43)</sup>  
새 노래를 부르고, 어려운 타령을 고치니, 늘 사람들을 경도시킬 줄 알았지.  
멋지게 단장할 줄도 알고, 기공 호흡도 능하니, 안과 밖이 모두 빼어나지.  
매번 술자리 노래관을 만나면, 사람들은 모두 말하네. 아깝다 이렇

41) 梁歸智, 앞의 글, 41쪽.

42) 樊凌雲, 「異代同歌 異曲同工 - 柳永〈傳花枝〉詞與關漢卿【南呂·一枝花】〈不伏老〉套曲之比較」 그는 양자가 세 가지 측면, 즉 바람둥이 식의 玩世 정신, 절박하면서 치밀한 서정 방식, 통속적이며 해학적인 언어 풍격이 유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43) 薛瑞生은 恣 遊俠를 일컫기도 하고 恣 能吏를 일컫기도 하여 설이 일치하지 않으나, 대체로 교유가 넓어 명사를 모두 안다는 의미일 것이라고 풀이 하고 있다. 『樂章集校註』, 58쪽.

게 늙다니 라고. // 염라대왕이 일찍이 가르치시길, 인생이란 괴로워할 필요 없다 하네. 좋은 시절 만나고, 아름다운 경치 마주치면, 환락을 쫓고 웃음을 사야 한다네. 설사 백여 년을 살더라도, 단지 이래야만 좋지. 만약 수명이 다 차서, 저승사자가 다그치러 온다면, 수문장 더러 알려 달라 해야지. (【傳花枝】平生自負, 風流才調. 口兒裏·道知張陳趙. 唱新詞, 改難令, 總知顛倒. 解刷扮, 能吹嗽, 表裏都峭. 每遇著·飲席歌筵, 人人盡道. 可惜許老了. // 閻羅大伯曾教來, 道人生·但不須煩惱. 遇良辰, 當美景, 追歡買笑. 騰活取百十年, 只恁廝好. 若限滿, 鬼使來追, 待倩个·掩通著到.)<sup>44)</sup>

유영이 평생 자부한 것은 학문이나 공명이 아니라 단지 풍류와 재주이다. 풍류와 재주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자면 바로 술과 노래인데, 이는 모두 여인과 연관된다. 그 자리는 인생에 즐거움과 웃음을 선사하기에, 저승사자가 올 때까지 즐기겠다고 당당히 주장하고 있다. 관한경이 「불복노」에서 보여준 처세 태도와 궤를 함께 한다. 물론 여기서 여인은 단지 성적 쾌락의 대상이 아니다. 관한경에 있어서 그녀들은 잡극의 연기자이자 수요자이듯이, 유영에게 그녀들은 사 작품의 연주자이자 향유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유영을 훗날 ‘書會才人’의 선행자로 인정하고, 그의 이 「전화지」를 중국문학사상 처음으로 통속 문학 전문 작가로 선언한 작품이라고 평가하는 것이다.<sup>45)</sup> 다음 작품에서 유영은 좀 더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 【학충친】

황금 방문(榜文) 위에, 우연히 장원 급제 꿈 놓쳐 버렸네. 개명한 시대 잠시 현인을 빠뜨리니, 어찌하랴. 풍운의 기회 이루지 못했으니, 어찌 멋대로 놀아보지 않으랴. 득실은 따져 무얼 해. 재주꾼 문인이야말로, 당연히 흰옷 입은 재상인 걸. // 안개 꽃 골목, 그림 병풍 어렵פות한 곳. 다행히 마음 속 임이 있나니, 찾아가야지. 그래 이렇게 색동옷 그녀에 기대자구나, 멋지고 풍치 있는 일, 평생이 유쾌하러니. 청춘이란 기껏해야 한나절인

44) 謝桃坊, 『柳永詞選評』, 73-76쪽.

45) 謝桃坊, 앞의 책, 75쪽. “柳永卽是書會才人的先行者, 其著名的【傳花枝】則是中國文學史上第一篇通俗文學專業作者的宣言.”

걸. 차마 허망한 명리 갖고서, 가벼운 술잔 나지막한 노래와 바꾸겠는가.  
 (【鶴冲天】黃金榜上, 偶失龍頭望. 明代暫遺賢, 如何向. 未遂風云便, 爭  
 不恣狂蕩. 何須論得喪. 才子詞人, 自是白衣卿相. // 烟花巷陌, 依約丹青  
 屏障. 幸有意中人, 堪尋訪. 且恁偎紅翠, 風流事, 平生暢. 青春都一餉. 忍  
 把浮名, 換了淺斟低唱.)<sup>46)</sup>

관한경의 「불복노」에서 꽃과 버들로 표현되었던 여인의 모습이 【전화지】에서는 어렴풋했지만 여기서는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차마 허망한 명리 갖고서, 가벼운 술잔 나지막한 노래와 바꾸겠는가.”는 바로 관한경이 【쌍조·신수령】에서 읊었던 “명리 따윈 다투지 마시구려. … 차라리 꽃 앞에 취하세 그려.”의 모델이었음에 틀림없다. 여기에서 핵심은 “재주꾼 문인이야말로, 당연히 흰옷 입은 재상인 걸(才子詞人, 自是白衣卿相.)”이라는 선언이다. ‘흰옷 입은 재상(白衣卿相)’은 관한경의 용어로 바꾸자면, ‘풍월공명의 장원(風月功名首)’이 되는데, 이는 과거급제와 부귀공명이라는 전통적인 문인의 이상과 완전히 구별되는 새로운 유형이다. 재력과 권력에 기대지 않고 예술과 문화로써 대중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새로운 문인, 즉 통속문학 전업 작가인 것이다.

관한경이 죽을 때까지 꽃과 버들 속에서 살겠다는 주장과 그의 애정극에서 여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문인의 형상에는 통속문학 전업 작가에 대한 뚜렷한 자각과 자부심이 내재되어 있다. 이 점에 관한경의 진정한 가치와 진면목이 있는지도 모른다. 원대 이후 이른바 俗文學이 크게 흥성하였는데, 관한경 같은 대중작가로서의 자각과 자부심이 없다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 6. 맺음말

관한경은 산곡과 잡극에서 모두 중요한 작가이지만, 양자의 작품 세계는 판연히 다르다고 여겨져 왔다. 잡극은 적극적으로 현실을 고발하고 비판하고

46) 謝桃坊, 앞의 책, 38-39쪽

있지만, 산곡은 현실을 외면하고 개인적 취향에 안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여기에는 원대는 암흑시대였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러나 관한경이 주로 활약하였던 시기, 즉 쿠빌라이가 통치하고 마르코 폴로가 여행기록을 남긴 당시 상황은 결코 암흑이 아니었다. 관한경 역시 자신의 시대를 오히려 생기 넘치고 풍류를 즐길 수 있는 때라고 인식하고 있다.

관한경은 「불복노」라는 작품에서 자신의 인생 목표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여인(주로 창기)과의 풍류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의 작품에는 모두 이러한 인생 목표가 반영되었기에, 산곡이든 잡곡이든 간에 남녀 간의 애정을 다룬 작품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산곡과 잡곡의 작품 세계가 판연히 다르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게 된다.

관한경의 애정극에서 사랑을 최종적으로 쟁취하는 자는 언제나 문인이다. 심지어 라이벌이 재력을 갖춘 상인이거나 권력을 갖춘 권세가이더라도 최종 승리는 문인의 몫이다. 이는 원대 문인의 집단 무의식적인 소망이자 妄想이다. 한편 사랑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여인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문인은 무력하거나 심지어 우스꽝스런 존재로 설정된다. 이는 관객의 취향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이자, 원대 문인의 초라한 자화상이다.

문화사적 관점에서 볼 때, 관한경의 작품 세계에는 통속문학 전업 작가에 대한 자각과 자부심이 담겨져 있다. 상인과 권세가와의 경쟁을 이겨내고 여인의 사랑을 차지하는 문인의 형상은 바로 예술과 문화로써 대중의 사랑을 획득하는 대중작가의 모습이다. 관한경의 주요 작품 세계는 바로 이러한 신형 문인의 자화상이자 선언인 것이다. 관한경의 진정한 가치와 진면목은 이런 관점에서 재인식되어야 한다.

## 參考文獻

- 金甫暎, 「關漢卿散曲研究」, 서울대학교 문학석사논문, 2003년.
- 졸고, 「대중작가인가 인민투사인가 - 역대 관한경 평가에 대한 비판적 검토」, 『중국인문과학』, 52집. 2012년.
- 宮崎市定 著, 曹秉漢 編譯, 『中國史』, 서울, 역민사, 1983년.
- 김호동 역주,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파주, 사계절, 2008년.
- 樊凌雲, 「異代同歌 異曲同工 - 柳永〈傳花枝〉詞與關漢卿【南呂·一枝花】〈不伏老〉套曲之比較」 『中國文學研究』, 1998년 2기.
- 高益榮, 『元雜劇的文化精神闡釋』,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5년.
- 郭英德, 「關劇文化意蘊發微」, 『戲曲研究』, 30기, 1989년.
- 胡士瑩, 『話本小說概論』, 北京, 中華書局, 1982년.
- 黃克, 「娛人和自娛 - 關漢卿劇曲和散曲不同傾向之管見」, 『光明日報』, 1984년 5월 29일.
- 黃仁宇, 『赫遜河畔談中國歷史』, 北京, 三聯書店, 1997년.
- 黃天驥, 「關漢卿和關一齋」, 『文學評論叢刊』, 9기, 1981년.
- 藍立萸 校註, 『彙校詳注關漢卿集』, 北京, 中華書局, 2006년.
- 李漢秋 周維培 校註, 『關漢卿散曲集』,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0년.
- 梁歸智, 「元曲的人文精神與文化啓示」, 『江蘇大學學報』, 11권, 2009년 1월.
- 羅錦堂, 『元雜劇本事考』, 臺北, 順先出版公司, 1976년.
- 馬顯慈, 『關漢卿白樸馬致遠三家散曲之比較研究』, 北京, 中華書局, 2004년.
- 唐圭璋, 『宋詞紀事』,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2년.
- 王艷霞, 「近25年來關漢卿研究述評」, 『徐州教育學院學報』, 20기, 2005년 6월.
- 楊秋紅, 「世俗的魅惑與儒生的妄想 - 關漢卿愛情劇中的俗文化特質探析」, 『信陽師範學院學報』, 2005년 2월.
- 張大新, 『二十世紀元代戲劇研究』,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7년.
- 張月中 主編, 『元曲通融』, 石家莊, 山西古籍出版社, 1999년.
- 張云生, 『關漢卿傳論』, 北京, 開明出版社, 1990년.

- 陳維昭, 『20世紀中國古代文學研究史·戲曲卷』, 上海, 東方出版中心, 2006년.  
謝桃坊, 『柳永詞選評』,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년.  
薛瑞生, 『樂章集校註』, 北京, 中華書局, 2002년.

Abstract

A Study on Guan Hanqing's Sanqu & Zaju

Yang Hoiseok

Guan Hanqing is the prominent writer in the area of Sanqu and Zaju and both are usually evaluated totally different from each other. This belief comes from as follows. Zaju tends to criticize social reality actively(aggressively). Sanqu, meanwhile, escape from reality and settle for the personal taste so it has been devaluated relative importance. This tendency presupposes that Yuan Dynasty is dark ages. But in the frontline of Guan Hanqing's literary works, under the control of Kublai Khan and Marco Polo's journey to the East, the period was not dark ages but full of vitality and taste for the arts.

Guan Hanqing made the point clear in 'Bu fu lao' that his goal in life was making romance with women, especially courtesans. Romance between men and women took a central place in his literary works cause all of his writings reflected his aim regardless of Sanqu or Zaju. So appraisals of his works that Sanqu and Zaju are totally different from each other is not persuasive.

The literati always win over love in Guan Hanqing's work. They are so far as to defeat so many rivals such as wealthy merchants or the powerful. This tells the literati's unconscious wishes. Then again, women play a leading role and the literati paly the fool in the process of romance. It means writer wants to meet the needs of audience, but at the same time to tell the literati's shabby self-portraits.

From a cultural history perspective, there are self awareness and pride of full-time writer of popular literature in the world of Guan Hanqing's works. A figure of the literati who win competition and finally capture women's heart is the very true self of popular writer who hunger for appeal to the mass. The world of Guan Hanqing's works are self-portrait or declaration as the new style literati. In this context, reappraisal of Guan Hanqing's value and real worth is necessary.

Key words : Guan Hanqing. Sanqu. Zaju. the new style literati. A full-time writer of popular literature

투 고 일 : 2013. 09. 10. / 심 사 일 : 2013. 10. 20.~ 2013. 10. 27. / 게재확정일 : 2013. 10. 28.